

바람직한 인재상 정립을 위한 동산인의 자세



최기형
교장선생님

학생 여러분,

한 학년을 마무리하며 신 학년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늘 이맘때면 대학진학 상황을 보면서 좋은 성과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을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들고 졸업식장에서 부모님을 뵙기가 민망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교와 사회에서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여 각자의 꿈을 이루고 보람찬 생활을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입학 당시의 수준과 진학 결과가 비례하지 않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는 물론이고 학교 생활부에 기록되는 다양한 활동내용에서 3년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어느 명문 대학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우리는 이런 학생을 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제시된 3가지 인재상이 있는데, 첫째 자기관리를 할 줄 아는 학생, 둘째 타인과 협력할 줄 아는 학생, 셋째 사익을 추구하기보다 공공이익을 위해 일하는 학생이라고 요약됩니다. 이런 내용은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일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훈화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째, 자기관리는 시간 관리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습관이나 교우관계와 취미생활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3년간 면학실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자세,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울리는 친구들의 면면, 독서활동의 내용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대학진학 후에도 체계적인 전공 학습이나 지속적인 외국어 능력 함양에도 자기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시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스파르타'는 전쟁터에서 '창'을 잃은 군인은 용서를 하였지만, '방패'를 잃은 군인은 시민권을 박탈할 정도로 엄한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창'은 공격용 무기이고 '방패'는 수비용 무기입니다. '창'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관계있는 것이지만, '방패'를 잃어버리면 동료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학교교육에서 '모둠학습, 토론학습, 통섭·융합교육'이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셋째, 공익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입니다. 외부 기관이나 독자가로부터 수여되는 장학금의 경우 적합한 학생의 추천서를 쓸 때, 관습적으로 '장차 사회 발전에 기여할 학생으로 믿기에 추천합니다.'라는 말로 주로 마무리합니다. 수시전형의 교사추천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나 자신의 이익 추구에 매몰된 사람보다 이타적이고 공공이익을 위해 이바지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학생 여러분, 신 학년에는 모든 동산인들이 이렇게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즐거운 마음, 단합된 자세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올 해도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웃으며 생활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학생이 웃으면 선생님과 학부모님 모두가 행복합니다.